製法特許 物質特許 轉換 시작

1천3백70건 申請중 현재 30건 認定

지난해 物質特許도입시 체결된 韓·美協定에 따라 製法特許의 物質特許전환이 시작됐다.

特許廳에 따르면 美國측이 製法特許의 物質特許전환을 위해 申請한 製法特許는 1천 3백 70건에 달하고 있는데, 特許廳은 이 가운데 현재 審査를 마친 30건을 우선 物質特許로 인정·公告키로 결정하고, 이 중 17건을 이미 公告했다.

이어 나머지 13건도 조만간 物質特許로 공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천 3백 70건의 物質特許전환신청 製法特許중 상당부분이 公告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物質特許의 도입시기를 앞당긴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돼 국내 精密化學業界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出願中인 物質特許가 審査公開를 거쳐 登錄되려면 3~4년이 걸려 90년경에나 特許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반면 이번 製法特許의 物質特許전환은 바로 特許로 효력을 발휘하게 돼 실제 제품생산과 관련된 技術일 경우 국내 업체가 製法改良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제품 생산시에도 로열티를 지급하고 생산해야만 한다.

교포 金哲男씨 日本辨理士로 登錄

지난해 辨試合格 두번째 자격획득

우리나라 교포 金哲男씨가 日本에서 두번째로 辨理士시험에 合格, 지난 6월 21일자로 日本辨理士登錄番號 第9638號로 登錄되었다.

日本辨理士會에 따르면 金辨理士는 제주도가 본적이며, 日本의 와세다(早稻田)大學 法學部를 1982년 졸업하고, 1983년에 후지자와(藤澤) 特許法律事務所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주소 : 東京 中央區 京橋 1—17—12 吉住빌딩 전화 03(563)5701).

또 金변리사는 변리사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올해 도교理科大學 공학부 2부 電氣工學科에 편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중이다.

金辨理士는 30~40년전 선친의 日本移住로 日本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日本辨理士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辨理士시험에 합격, 83년도에 日本辨理士로 登錄한 鄭陽一씨에 이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두번째로 辨理士試驗에 합격, 登錄되게 되었다.

현재 鄭陽一辨理士는 오야마(大島) 特許法律事務所를 독립하여 1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주소 : 東京千代田區 飯田橋 1—8—6 전화 (03)262—1761).

政策諮問委員會規程 制定 및 委員 위촉

特許廳은 최근 工業所有權과 관련한 주요정책의 효율적 입안 및 시행을 위해 政策諮問委員會의 規程을 制定하는 한편 21명의 委員도 위촉했다.

同委는 앞으로 工所權에 관한 주요政策 및 國際協力과 관련한 주요政策의 수립, 그리고 制度 및 운영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등에 대해 特許廳長의 諮問에 응하게 된다. 〈용〉